

위대한수업  
GREAT MINDS

● ONE GREAT MIND  
● THREE GREAT QUESTIONS

# 불평등의 수수께끼

예란 테르보른



본 교재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저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전제할 수 없습니다.

## 차례

### 프롤로그

---

|                 |   |
|-----------------|---|
| 강사 소개   예란 테르보른 | 5 |
| 불평등의 수수께끼       | 7 |

---

|            |   |
|------------|---|
| 강의 속 핵심 개념 | 9 |
|------------|---|

|             |    |
|-------------|----|
| 세 가지 위대한 질문 | 11 |
|-------------|----|

- 실존적 불평등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나요?
  - 평등의 시대가 자본주의로부터 역습을 받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 팬데믹은 어떤 방식으로 평등한 세상으로의 변화에 기여했나요?
- 

|                           |    |
|---------------------------|----|
|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강연 시리즈 | 17 |
|---------------------------|----|

프롤로그

세계 최고 사회학자의 일갈,  
“불평등은 이미 자궁에서 시작된다”

불평등에 대한 세계 권위자가 내다보는 21세기의 불평등  
우리 시대는 왜, 얼마나 불평등한가?

## 강사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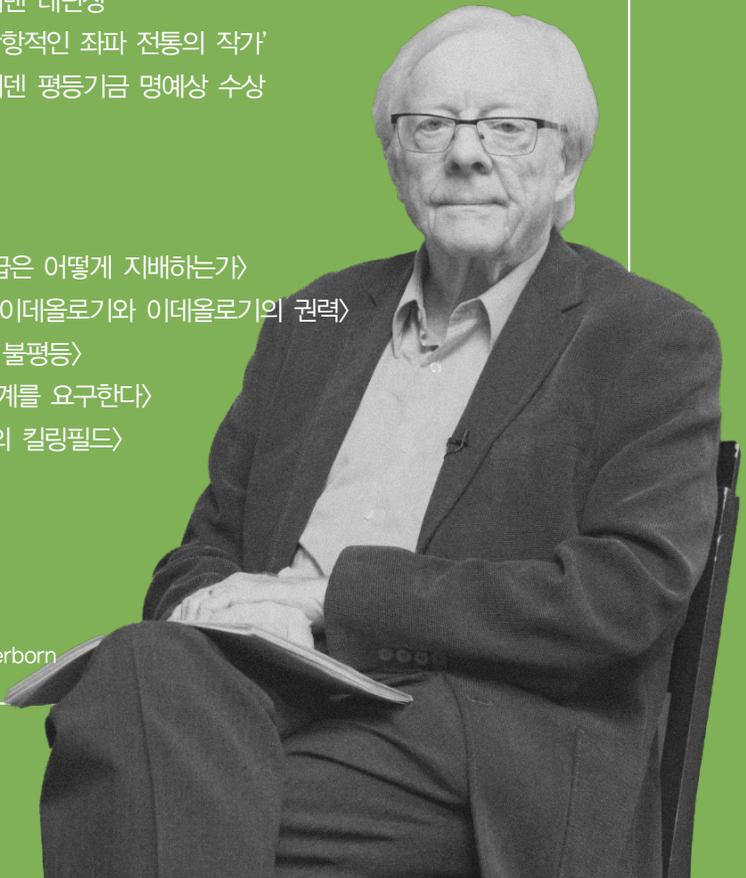
### 강사 연보

-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사회학 명예교수
- 스웨덴 린네대학교 사회학과 겸임교수
- 2019년 스웨덴 레닌상  
'비판적이고 반항적인 좌파 전통의 작가'
- 2018년 스웨덴 평등기금 명예상 수상

### 대표 저서

- 1978 <지배계급은 어떻게 지배하는가>
- 1980 <권력의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의 권력>
- 2006 <세계의 불평등>
- 2011 <다른 세계를 요구한다>
- 2013 <불평등의 킬링필드>

Göran Therborn



---

# 예란 테르보른

● 예란 테르보른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사회학 명예교수이며 스웨덴 린네대학교 사회학과와 겸임교수입니다. 그는 스무 살 때 스웨덴의 생디칼리즘(syndicalisme) 잡지 <Zenit>에 글을 기고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성 학계에 대한 비판 때문에 사회학의 반항아로 각인된 예란 테르보른은 유럽의 진보 학술지 <뉴 레프트 리뷰 - New Left Review>를 통해 논쟁적인 글들을 꾸준히 발표해왔습니다.

『지배계급은 어떻게 지배하는가』(1978), 『권력의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의 권력』(1980), 『세계의 불평등』(2006), 『마르크스주의부터 포스트 마르크스주의까지』(2008), 『불평등의 킬링필드』(2013)를 포함해 40여 권의 저서를 발표했습니다. 그의 글은 사회학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으며 24개 언어로 번역돼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예란 테르보른은 2010년 교수직에서 은퇴한 이후에도 가족, 성별, 젠더 관계, 불평등, 현대의 급진적 사회사상, 도시와 권력, 중산층 형성 등에 대해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 불평등의 수수께끼

2021년 11월, 국제 여론조사업체 입소스가 28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계의 걱정거리' (What Worries World) 조사에서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이 33%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가 1위 자리를 내준 건 18개월 만인데요. 조사 이후에도 여전히 불평등은 인플레이션 문제에 이어 세계 시민들의 두 번째 걱정거리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와 불평등 문제에 학문적 인생을 보낸 예란 테르보른. 그는 불평등이 출생 전인 엄마의 자궁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합니다. 임신부의 건강 상태나 경제 상황이 태아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부유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는 부는 물론 각종 특권을 물려받는 것은 물론 다른 계층보다 훨씬 양질의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4년제 대학 학위를 가진 사람을 학위가 없는 사람보다 기대 수명이 길고 고위직 종사자가 최하위 계층인 수위나 사무보조 노동자보다 기대 수명이 긴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불평등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발생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는 선진국들보다 빈곤국 서민층들이 입을 가능성이 큼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흑인이나 히스패닉 등 유색 인종이 백인보다 많죠. 양극화를 부르는 불평등을 해소할 방법은 없을까요?

〈위대한 수업-그레이트 마인즈〉 예란 테르보른 편에서는 불평등에 대한 그의 예리한 통찰과 해결 방법에 대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본 강의 영상은 웹사이트 [www.kmooc.kr](http://www.kmooc.kr)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 1

## 평등한 세상

모든 사람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고 추구하며 번영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예란 테르보른은 평등은 모든 것이 완전히 같다는 의미가 아닌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그가 말하는 평등한 세상은 '더 평등하고 덜 불평등한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

## 실존적 불평등

특정 대상을 무시 또는 경멸하거나 금지하고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뜻하는 '실존적 불평등'은 가족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계와 집단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란 테르보른은 이와 반대의 개념인 '실존적 평등'을 두고 자본과 노동의 관계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세속화와 함께 지속되고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3

##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세계화 흐름에 기반하여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자본가의 자유를 극대화하려는 정치 이념입니다. 에란 테르보른은 신자유주의가 1980년부터 이어진 거대한 불평등 이데올로기라고 설명하며 팬데믹이 신자유주의를 증식하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합니다.

# 1

## 실존적 불평등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나요?

### 예란 테르보른

“실존적 불평등은 가족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계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인정과 존중을 받는 대상과 경멸하거나 금지하고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행위를 당하는 대상이 공존합니다. 실존적 불평등의 가장 흔한 영향은 자신감이 무너지는 겁니다. 억압 또는 지배당하는 계급 민족 집단에서 흔히 나타나는 불평등의 형태입니다.

불평등을 느끼는 경우 자존감 저하나 심각한 자기 의심 때로는 자기혐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존적 불평등이라는 용어보다 더 잘 알려진 명칭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 등 피부색과 종교, 민족 등을 이유로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짓밟는 행동들 말입니다. 또한 ‘가부장제’와 ‘성차별’도 있습니다. 가부장제는 여자아이들에게 아주 어릴 때부터 ‘여자는 남자보다 못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주입된 편견은 성인이 되어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바로 실존적 불평등입니다.

실존적 불평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최근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인종차별과 가부장제, 성차별주의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리

고 동성애 혐오도 또 다른 실존적 불평등입니다. 그 외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두 가지 불평등이 더 있습니다. 바로, 카스트와 계급입니다. 힌두교의 전통적인 제도인 카스트는 실존 불평등 중에서도 가장 잔인합니다. 가장 낮은 계층인 불가촉천민은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신분입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이 제도는 인도가 독립한 후 정책을 통해 많이 완화됐지만 인도에서 카스트는 여전히 존재하며 삶의 기회를 결정합니다.

카스트 외에 계급도 실존적 불평등의 예시입니다. 계급으로 인하여 경제적 착취와 지배뿐 아니라 계급 멸시와 분리 및 차별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계급 멸시는 당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깊은 모욕을 안겨 주는 아주 잔인한 형태의 불평등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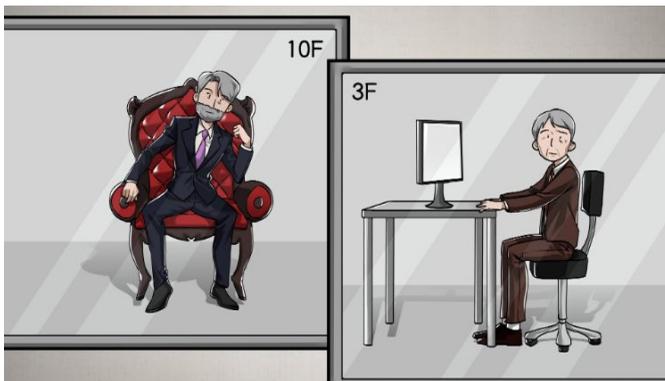
---



---



---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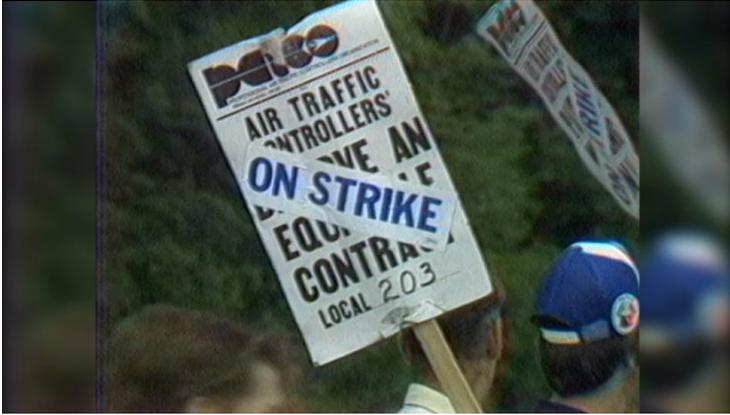
## 평등의 시대가 자본주의로부터 역습을 받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 예란 테르보른

“1945년과 1975년 사이 이룩했던 위대한 평등에 역풍이 분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조적인 원인은 자본과 노동의 권력관계가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탈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생긴 중요한 양상입니다. 그 밖에도 중요한 위기들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사회 변화와 노동력 감소, 자본의 권력 강화가 가속화된 겁니다.

1970년대 석유 파동이 발생하면서 세계 시장이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이는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는 결과를 낳았죠. 그리고 1970년대 세계 시장에 또 다른 위기가 발생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패망 후 침체한 일본과 독일 등 몇몇 나라가 세계시장에 다시 진출한 겁니다.

서독과 일본 기업들은 물론 한국과 대만 기업들까지도 세계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따라서 유럽과 북미 기업들의 이윤이 감소했습니다. 동시에 인플레이션과 실업이라는 큰 위기가 발생했죠. 이는 전후의 경제 정책이 더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윤을 회복하려면 공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본은 반격에 나섰습니다. 수십 년간의 평등화 시기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자본의 반격은 여러 형태로 이뤄졌습니다. 경제적인 반격의 주요 대상은 아시아였고 이후에 세계 다른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자본주의 안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조업에서 금융 투기와 주식, 부동산 시장에 집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

---

---

---

---

# 3

## 팬데믹은 어떤 방식으로 평등한 세상으로의 변화에 기여했나요?

### 예란 테르보른

“사실 팬데믹은 불평등의 폭발을 유발해 그 자체로 매우 부정적인 직접적 분배 효과를 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은 인종에 따라 차이가 났는데요. 미국의 수치가 좋은 예입니다. 미국의 백인과 아시아인의 경우 코로나19의 사망 피해가 적었습니다. 반면 아프리카계나 히스패닉계 미국인들 사이에선 큰 영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팬데믹은 직접적으로 불평등을 심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팬데믹에도 일해야 했던 필수 노동자들 또한 직접적 피해의 대상입니다. 그들과는 달리 집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었던 중간 계급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장기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볼 때 팬데믹은 세상을 더 평등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이 1980년부터 이어진 거대한 불평등 이데올로기인 신자유주의를 종식했기 때문입니다.

팬데믹 시대에 정부는 더 이상 골칫거리가 아닙니다. 레이건 대통령과 대처 총리가 주장했던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빌 클린턴 대통령의 말도 이젠 틀린 말이 됐어요. 이제는 큰 정부가 해결책이며 정부의 공공 개입이

중요합니다. 미국은 이미 이러한 변화의 선봉에 섰습니다. 팬데믹을 끝내고 신자유주의의 작은 정부 개념을 종식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

---

---

---

---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강연 시리즈

제인 구달 | 나의 이야기

슬라보예 지젝 | 자유론

스티브 맥커리 | 한 컷의 세계

장 티롤 | 플랫폼 제국의 비밀

스콧 갤러웨이 | 빅테크 기업의 흥망성쇠

피에르 가니에르 | 미식의 세계

에바 일루즈 | 사랑의 사회학

맥스 부트 | 역사를 바꾼 무기들

조 말론 | 조향의 세계

뤼트허르 브레흐만 | 인간의 두 얼굴

웬디 도니거 | 힌두학 개론

헬레나 호지 | 다시, 오래된 미래

마리아나 마추카토 | 국가는 무엇을 해야하나

제임스 카메론 | 미래에서 온 영화